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이번 생 놓치지 말고 대오반성해야

#### 법신 ③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고 놓는 것도 아니라는 이 도리, 그 당처, 이걸 알았어.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듣고 그만 알아버리네. 그러하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부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공부해 주신 거나 한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썩 먹고 알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이 다짐을 통해서 각고 수행하신 그것을 몸속 받아들였다 말이지. 그러하니 우리만큼 팔자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각고 고행을 했어. 금강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칼에 잘라기도 하고 나오지 않아요? 이런데 우리는 말이지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이 각고 고행하신 그것을 몸속 그대로 받아들였다 말이지. 그러하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도리를 참 그로우나 해서 실감이 여러분들이 난다면은 이 자리에서 벌써 부처 이론 겁니다. 별것이 부처입니까? 별것이 어디 부처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서 이루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석가모니께서는 누만걸을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마지막에 가서는, 다 방편입니다. 만도 육년 동안 좌부동했다 나중에 육년 만에 쓸데없는 고생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뱀이나 말이여. 공연히 고생을 했어. 육년 동안이나. 그런 부처님의 경지에서 그래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시시비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우리 방편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공연한 고생을 했어. 그

“큰 도를 이루려면 우선 그 기틀과 연을 만나야 한다.”  
이거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으로서, 이 중생들이 많은데 어려운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이 좀 어렵긴 어렵겠어요. 이걸 말 안하더라도 알겠지만 잘나 못나나 그런 별 문제로 하고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몸을 받는데 남자의 몸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슨 까닭이나. 그 생리가 달라.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계가 더 많은 것은 그걸 제거하는 약입니다. 처방입니다. 약방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보다 남자의 몸이 공부를 하는데 좀 수월하다 하는 이걸 뜻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불도에 들어가 어렵다. 이거 부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은 받았어. 또 남자의 몸도 받았어. 그런데 남자가 여자다 하는 것은 말이지 그 법신에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다 이거 방편입니다.

그런데 불도를 만나기가 어려워. 참말로 이거 빠져서 느끼집니다. 나의 경우로 봐서는 말이지 절간이나 예배당이니 하는 것은 정신 빠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더욱 더 예배당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절간은 술 먹는 자리로 알았거든요. 왜 술 먹는 자리로 알았느냐면 절간은 경치가 좋은 데 있기 때문에. 경치 좋은 곳에서 술 한 잔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큰 일 날 뻔 했어요. 하하하. 삼도지옥 영 못 면할 뻔 했습니다. 이런데 참말로 불도란 뱀이나. 이러한 도리를 설명하는 처소를 도장(도량)이라 하고, 이러한 도리가 불도인데 참말로 우리가 이 도리 몰랐으면 어찌 했겠습니까. 아, 이것만 내다 해서 어찌겠습니까. 나중에 죽을 때 할 수 없다 하고 체념이라 하나요, 뭐라 하나요? 체념이란 말 말고 우리말로 뭐 있을 거여. 얼마나 답답해서 체념을 하겠나요. 체념을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요. 기가 막힐 거여. 그러면 그 고통, 체념, 이 놈이 나중에 뿌리가 돼서 다른 과를 만드네. 그 과가 좋은 과가 되겠나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사람의 몸 받았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오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내 거다 하면서  
불구덩이에서 죽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만 그대로가 부처인데 그만 그대로 본래 슬기, 이 육신을 끄집고 다니는 그 슬기 자리가 부처인데 공연히 육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해서 무정물인 이걸 고생을 시켰노 하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있으니 이걸 여러분들 참 의심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참말로 모처럼 사람의 몸을 받았으니 사람의 몸을 받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오 반성해야 됩니다. 대오 반성 안 하면 그야말로 이것이 내 거다 이래 하면서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서 죽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도 아니지만 난 죽는다 생각하고, 나는 낫다 생각하고 이래서 일생 보내려면 참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공부를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 ‘信’은 도의 근원이자 공덕의 어머니

#### ⑧-1 상수불학(常隨佛學)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一拜)  
隨喜懺悔諸善根 迴向衆生及佛道  
我隨一切如來學 脩習普賢圓滿行  
勤修清淨波羅蜜 恒不忘先菩提心  
滅除障垢無有餘 一切妙行皆成就  
原共諸眾生住生安樂國

상수불학(常隨佛學)은 세 가지의 각기 뉘앙스가 다른 말로 풀이된다. ① 항상 부처님의 학문을 따라 배운다. ②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 ③ 항상 깨친, 여진 이를 따라서 배운다.

앞에서 우리가 수희공덕(隨喜功德)을 배우고 참제업장(懺除業障)을 하고 그런 것이 모두 결국에는 무엇임을 이룩함이나 하면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중생과 전 인류가 달성해야 할 부처님의 과업을 위하여 그 도(道)를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는데는 우리가 모든 여래를 따라서 배워야 하고 또 모든 여래의 학문을 따라야 한다. (我隨一切如來學) 그럴려면 널리 모든 선(善)을 닦고 보현(普賢)의 행행(圓行), 즉 보현보살과 같은 원만한 덕행(德行)을 쌓고 익혀 나가야 된다. 여래수행(如來修行)을 해야 된다. 진실한 알찬 수행을 하고 불방일(不放逸)하고 근수정정바라밀(勤修清淨波羅蜜)한다. 부지런히 맑은 바라밀(婆羅蜜)을 닦아나간다. 우리는 깨쳐야 한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수행하는 동안에는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때 끼인 것, 장구(障垢)가 죄다 없어진다. 그런 다음 부처의 학문을 따라 배우면, 부처의 행동을 따른 정진(精進)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모두 다 낱날이 성취되게 마련이다. 부처를 따라 배운다고 하지만 그럼 부처란 무엇일까?

우리는 앞에서 내가 깨친다. 내가 똑바로 알고 깨쳐야 하고 또 남들을 깨쳐준다. 그리고 깨친 바를 행동으로서 실천한다고 이와 같이 배웠다. 우리말로 ‘깨친다’는 것은 붓다(Buddha), 즉 내가 불(佛)이다 하는 뜻이다. 불(佛)은 중국에서 각(覺)이라 하고 일어(日語)로는 사도루, 독일어(獨語)로 Erkenntnis가 이에 가깝고 범어(語)로 Buddha이다. 중국어로 각(覺)이라는 것은 學과 見이 합쳐져 된 것으로 보고 배웠다의 것이다. 일어(日語)의 ‘さとる는 さいとい’라는 말에서 되어진, 귀가 빠르다, 득 청각(聽覺)에

서 비롯한 총명(聰明)을 뜻하는 말이다. 총명하다는 것은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 우리말로 깨쳤다는 것은, 누워 자다가 잠이 깨었다. 지금까지 꿈을 꾸다가 이에서 벗어났다. 이런 소리다. 또 하나는 달 같아서 병아리가 되었다 하는 말이다. 달 같아서 병아리가 나왔다. 즉 깨쳤다. 달 같이라는 말이 탁 터져서 된 것. 잠 잘 때와 잠에서 깨친 때와, 그리고 달같은 상태와 달같은 달같은 탁 깨쳐서 병아리가 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귀로 듣고 알았다거나, 눈으로 보고 배우고 알았다는 등과 깨쳤다고 하는 것과는 척이나 대조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의 깨쳤다는 말은 확실히 중국어 일어와 다르다. 부처는 되어진 것이며, 어디에서 되었느냐 하면 우리들 사람이 깨쳤으므로 부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부처의 불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말로 깨쳤다는 것이 중국어나

(十行, 십지향(十廻向), 십지(十地) 등이다. 십지향까지 네 단계는 수행의 과정이다. 이를 간단히 풀이해 보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첫째 신뢰감이 가고 믿어져야 한다. 믿어졌다는 것은 그 믿음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단단하게 굳어져서 거 거기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즉 신(信)에서 주(住)로 이행한 것이다. 단단하게 굳어져서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는 수행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노릇을 한다. 실행한다. 하나씩 돌씩 실행한 그것을 잘했다, 되새겨 본다. 경험을 다시금 더듬어 본다. 앞으로 더 잘 해 나가야겠다. 한 일을 누구에게 돌려야겠다. 즉 잘된 일의 경험을 활용하게 모든 사람들, 중생들 전 인류를 향하여 다시금 크게 실천해 나가야겠다. 이것이 회향이다.

“  
수행하고 바라밀을 닦아  
깨쳐 나가야 한다  
수행은 믿음이 근본이며  
여기에 모든 과정이 들어있다  
信·住·行·廻向은 같으며  
무궁한 공덕이 있다

“  
일어보다도 훨씬 뾰뚱하게 여실하 그려 내었다.  
수희(隨喜)와 참회(懺悔)라는, 중생과 부처에게 돌아가 배우려는 것. 모든 부처를 따라 배운다. 보현보살의 원만한 행동을 익힌다. 부지런히 맑은 바라밀(婆羅蜜)을 닦는다. 여진 마음으로 얽어매진 장구(障垢) 모두 말끔히 씻기어 착한 일 하면 행동, 끝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

여기서 ‘부처와 중생에게 돌아가’, 하는 회향(回向)이란 말은 앞에서 말한 오수의 한 단경인 십회향(十廻向)을 가리킨다. 오수는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

이렇게 보면 신(信), 주(住), 행(行), 회향(廻向)이 한 가지 같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 말로 표현을 달리한 것이 아니냐고 물을 것이다. 이것은 다 같은 얘기다. 앞에서 말한 십지(十地)도 역시 같은 것이지만 별다른 것은 아니었다.

오수(五修)의 신(信), 주(住), 행(行), 회향(廻向), 지(地)는 다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같다고 통틀어 말해 버리면 수행자가 어리둥절하고 알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오수(五修)인 다섯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함으로써 좀 더 알기 쉽게 되었고 다시 이 다섯을 제가끔 열 개씩 세분하여 냈다. 그러므로 오수는 오심의 지위가 된다. 신(信)에 발을 들여 놓기 전의 범부는 일어고 신, 주, 행, 회향, 지(信住行廻向地)를 다 거쳐 오(五)십일이 되어 오수의 마지막인 등각(等覺)에 이르게, 이는 부처와 꼭 같이 되었을 때, 그 덕행의 과(果)가 가득 찼을 지경에 오심(五心)이 오(妙)에 달한다. 묘각이라 함은 부처님이다. 이렇듯 법문에서 불(佛)까지 오십삼(五十三) 위로 나누었지만 이것은 설명을 위한 것이니 이것을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원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남경중의약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6월 30일

####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02)511-1080,2026